



2026. 8. 19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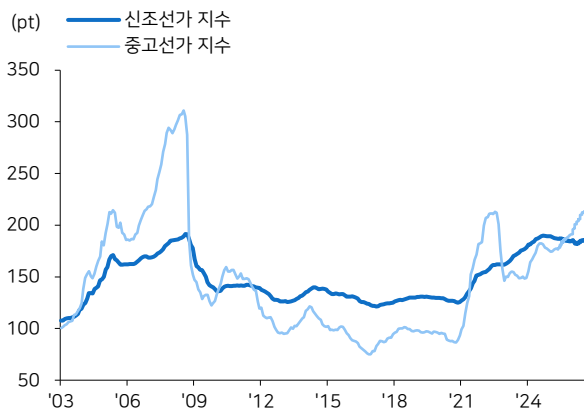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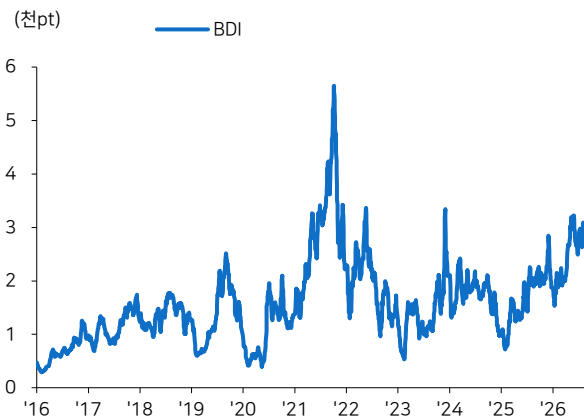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5.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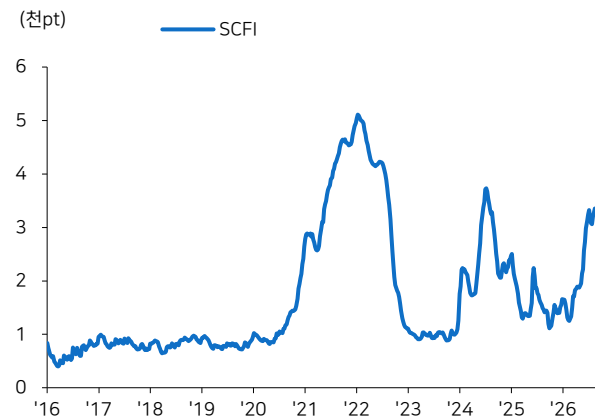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78.0p (+1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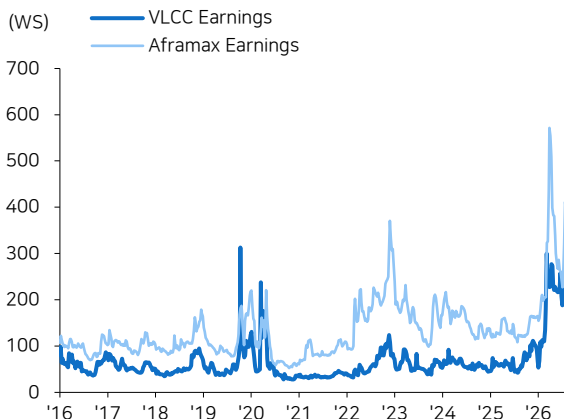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355.2 (+79.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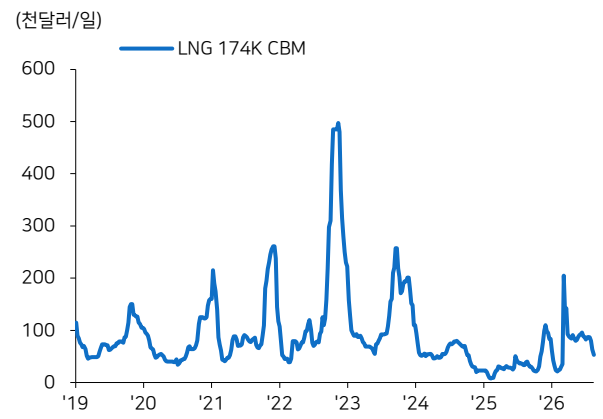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79.3WS (+4.7p WoW)



LNG Spot 운임

53.3천달러 (-10.1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물폭탄에도 하루 만에 정상화 속도...한화오션·삼성중 "선박 납기 차질 없다" (이투데이)

<https://zrr.kr/gahJl6>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기록적인 폭우로 전달 출근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하루 만에 정상 출근 및 조업 체제로 복귀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일부 생산설비·변전설비·도로 등이 침수돼 복구 중이며, 삼성중공업도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건조 중인 선박 등 핵심 생산 현장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알려짐. 양사의 전달 출근 제한이 특근 일정에 해당하고 조선업 특성상 공정 조정 여지가 있어 생산 및 선박 인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이라고 전해짐.

"일주일 새 끼임사망 2건"...노동부, 현대중공업 감독 착수 (뉴시스)

<https://zrr.kr/IWTe3r>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주일 사이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울산·군산조선소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본사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2명이 투입돼 끼임·추락·화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고 알려짐. 노동부는 기존 개선조치와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시 사법처리하는 한편 감독 종료 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 이행 여부까지 점검한다고 전해짐.

HD 현대중·한화오션, 베트남 군함 자립 속 '기술 수출 전환기' 맞아 (뉴스프리존)

<https://zrr.kr/iV5Eup>

베트남이 자국 기술로 첫 국산 다목적 대잠 호위함 건조에 착수하며 동남아 군함 시장이 완제품 수입에서 현지 생산·기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부품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이 군함 국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에는 완제품 수출보다 설계 기술·추진체계·전투체계 등 고부가가치 기술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모델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할 전망으로 알려짐.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내 조선사들은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및 기술 수출을 통해 동남아 군함 시장의 경쟁력 유지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다고 전해짐.

제주대-한화오션, 해양 MRO 인재 양성 협약...단과대 신설 추진 (연합뉴스)

<https://zrr.kr/il3Yy2>

제주대학교와 한화오션이 친환경 해양 MRO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양 기관은 해양 MRO 전문 교육,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하며 제주대는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한화오션은 제주도와 연계해 친환경 기준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주형 MRO 모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짐.

'한화 인수 추진' 오스탈 USA, 美 해군 상륙정 첫 인도 (더구루)

<https://zrr.kr/Gh2u2p>

Austal USA가 미 해군에 차세대 상륙용주정 LCU 1700급 초도함 LCU 1710을 인도하며 강철 함정 건조 및 복합 선박 통합 역량을 입증했다고 보도됨. LCU 1710은 2023년 미 해군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최대 12척까지 건조되며, 대형 강습상륙함과 해안 간 병력·차량·장비 수송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짐. 한화는 Austal USA 인수를 통해 필리핀조선소에 이어 미국 내 해양 방산 거점을 확대하고,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주 역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해짐.

한화오션 제진 TKMS, 加 잠수함 납기단축 분할건조 추진...유럽 조선연합 가동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5NgZvv>

TKMS가 한화오션을 제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납기 단축을 위해 Navantia 등 유럽 조선소와 잠수함 블록 분할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TKMS는 잠수함 전체 건조가 아닌 핵심 섹션·블록을 유럽 내 조선소에서 제작하고, 향후 캐나다 현지 조선소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생산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짐. 캐나다의 노후 Victoria급 잠수함이 2030년대 중반부터 퇴역하는 만큼 TKMS는 다국적 분할 건조를 통해 납기 위험을 낮추고 현지 공급망 참여를 확대해 최대 12척 규모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가속하려는 전략이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